

# 남녀대학생의 1인 가구 선택의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ntion of One-person Households Selection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홍영윤\*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주영애\*\*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강사 박인선\*\*\*

Dept. of Consumer Science & Living Culture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

*Adjunct Professor* Hong, Young yun

Dept. of Consumer Science & Living Culture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

*Professor* Ju, Young ae

Dept. of Consumer Science & Living Culture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

*Lecturer* Park, In sun

##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

IV. 연구결과 및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tention of one-person households' selection in the university students. The survey was analyzed with factor analysis, reliability, cross tabulation analysis, t-value,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version, 18.0. The total of 237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important factors, problems and reasons when selection of the one-person households in the future, and the perception of one-person households. Second, gender, perception of one-person

\* 주저자 : 홍영윤(katarina0320@hanmail.net)

\*\* 교신저자 : 주영애(jyoungae@sungshin.ac.kr)

\*\*\* 공동저자 : 박인선(suni2929@hanmail.net)

households, the importance of self-improvement, housing expenses, and family rit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ntion of one-person households' selection.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ocial discussion about one-person households.

**Key Words** : 1인 가구(one-person households), 대학생(university students), 1인 가구 선택의향(intention of one-person households selection)

## I. 서론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2%(통계청, 2016)를 차지하며, 2035년에는 총 가구의 34.3%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편적인 가구형태였던 4인 가구의 비율이 줄어들고 한부모 가정, 복합 가정, 다문화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삶의 형태와 가치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가구 형태들이 보편화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정책과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 가구가 포함(2018년 7월17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인 가구 증가 원인은 청년실업 증가, 경제적 어려움 및 결혼관의 변화로 인한 혼인율 감소와 만혼의 증가, 이혼, 별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독신가구 증가 등 다양하다(변미리·신상연·조권중, 2008; 홍승아 외, 2017). 그 중 청년세대의 높은 실업률과 고용불안정 그리고 주거 빈곤 등은 1인 가구를 선택하게 되는 비자발적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자발적 1인 가구로 남아있게 된다. 즉 이들은 미취업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사회전반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중심의 의식주생활, 여가생활, 소비생활 등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정책은 아직까지 다인가구에 맞추어져 있다. 1인 가구는 다

인가구에 비해 소득, 주거, 안전, 건강 등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청년 1인 가구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처해야만 한다. 1인 가구가 의식주생활을 비롯하여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삶의 적응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1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1인 가구의 식생활(남소영, 2016), 주생활(김옥연·문영기, 2009), 여가생활(백영국, 2017: 강은나·김혜진·김영선, 2017), 소비생활(최홍철 외, 2016: 박문수 외, 2015) 등 1인 가구의 생활문화실태에 관한 연구와 1인 가구 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김시월·조향숙, 2015)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대부분의 1인 가구 연구는 생애주기별,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나 실태조사, 기반 정책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청년 1인 가구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김종숙, 2014). 1인 가구 집단은 홀로 산다는 외현적인 측면에서 동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싫지만, 그들은 생활영역과 관심의 대상, 라이프 스타일 등이 서로 다르므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양상을 띄고 있으며, 주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내의 차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뚜렷이 구분되는 경향(송완구·임지은·도해용, 2015)을 보이고 있다.

청년 시기는 전 생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생애의 중요한 사건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혼인, 임신, 출산 등이 집중되는 때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1인 가구로의 유입과 유출이 상당히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별로 생애경험 자체가 매우 다른 연령대이다(김종숙, 2014). 본 연구에서 청년세대 중에서도 대학생들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사회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주체가 될 것 이므로 대학생의 1인 가구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의 1인 가구 삶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형성은 성인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향을 다룬 연구는 미흡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시의성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미래 1인 가구 선택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앞으로 살아갈 1인 가구의 생활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1인 가구의 개념 및 특성

1인 가구란 혼자서 살림을 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통계청, 2012)를 의미한다. 1인 가구는 기존의 많은 문헌들에서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옥연·문영기, 2009).

우리나라는 1인 가구 형성요인이나, 사회문화적,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형성요인으로는 자발적/비자발적 1인 가구로 구분되며, 사회문화적 특성으로는 비혼/혼 1인 가구로 구분되며,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청년/장년/노년 1인 가구로 구분된다(한수연, 2012).

1인 가구를 가족으로 볼 것인지 또는 가족의 해체로 볼 것인가 가족의 다양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1인 가구를 가족의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볼때 혼인이나 혈연관계 대신 다른 관계로 형성되는 새로운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흔한 가구유형이 되었다는 점은 우리사회의 가족생활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세대별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는 1인가구의 상황에 따라 이질적이고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

〈표 1〉 선행연구 1인 가구 정의

연구자	지칭용어	1인 가구 정의
여운경·양세정(2001)	1인 가구	가구원이 한명인 가구
박은아(2004)	단독 가구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독신(노인 독신)가구 또는 부부(노부부)가구
김년희·채정숙(2005)	독신 가구 단독 가구	법적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별거 중인 경우까지 포함,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가구
차경옥(2006)	1인 가구	성인 한 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가구
김옥연·문영기(2009)	1인 가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혼 청·장년층 가구
통계청(2015)	1인 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출처: 장진희·김연재(2016).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불안정 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다.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은 청년세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과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두 가지 특성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특징도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아야 한다(우민희·이명진·최셋별, 2015). 한국 1인 가구 보고서(KB연구보고서, 2017)에 따르면 1인 가구 형성 이유로 20대는 학교/직장 때문에(71.7%),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60.1%)로 조사되었고, 30대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62.9%), 학교/직장 때문(49.3%)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 세대의 1인 가구는 학교·직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가구형성과 독립이나 비혼으로 인한 자발적 가구형성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는 소득수준의 편차가 매우 커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수준의 1인 가구와 상당히 취약한 1인 가구가 공존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솔로 이코노미, 싱글슈머, FOR-ME족 등과 같은 1인 가구를 나타내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1인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주요 소비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의 소비성향에 있어서도 소득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고 있다. 그로인한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상이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장진희와 김연재(2016)의 연구를 보면, 서울시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월평균소득이 높은 1인 가구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여성 1인 가구 중 63.9%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장년여성 1인 가구(45.8%), 고령여성 1인 가구(30.4%)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비자발적 유입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2. 1인 가구 선택의향 영향 요인

청년세대의 1인 가구 선택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청년들의 인식 변화 측면으로 우선 살펴 볼

수 있는데, 최효미와 김지현(2018)의 연구에서 청년들의 1인 가구에 대한 생각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 1인 가구에 대한 선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대 여성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지는 시점에는 1인 가구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으며, 점차 학업이나 직장과의 여건으로 인한 비자발적 분가보다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자발적 분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 관련 조사(마크로밀엠브레인, 20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43.6%)보다는 여성(59.5%)이 1인 가구의 장점이 많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KB 연구보고서)에서도 다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1인 가구를 '본인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독립'(34.7%)이라고 인식하고,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87.9%)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혼자 사는 본인 스스로에 대해 '자유로운', '자립심이 강한', '여유로운' 등의 긍정적 이미지의 단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중 49.7%는 향후 1인 가구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여성(63.1%)이 남성(39.3%)보다 향후 혼자 살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 장점, 문제요인과 소득,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지속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KB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혼자 살면서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54.5%)과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28.6%)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 가구의 문제로는 '외로움 등 심리적인 요소'(23.1%)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외로움 등 심리적인 요소'와 '건강', '식사 해결' 등에 대한 걱정이 큰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안전/위험' 및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가계지출 비용 중 주거생활비에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생활비는 1인 가구에게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항목이며 향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인 것(한국소비자원, 2016)으로 나타나 1인 가구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1인 가구는 개인화의 양상을 보여주지만 고립된 개인이기 보다는 여전히 원가족 중심의 사고와 관계망을 유지(김혜영,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하고 있으며, 또래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김혜영, 201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 거의 만나지 않는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절반 정도(46.4%)가 여가생활을 혼자 하는 것(변미리, 2015)으로 나타나는 다소 상반된 결과도 있다. 이렇듯 청년 1인 가구의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지속에 관한 변인도 앞으로 1인 가구 선택의향에 영향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즉, 1인 가구 선택과 관련된 영향 요인은 선행연구고찰에서 나타났듯이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성, 연령, 1인 가구의 장점, 문제요인, 소득,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및 지속요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남녀대학생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남녀대학생의 미래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3. 남녀대학생의 미래 1인 가구 선택이유와 문제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4. 남녀대학생의 미래 1인 가구 선택의향에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8년 4월 18일~ 2018년 4월 30일까지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대전에서 거주하는 남녀대학생으로 편익방식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241부 중에서 부정확하게 응답하였거나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총 237부(서울 133명, 대전 104명)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우민희 외, 2015), 1인 가구 문제요인(한혜진, 2013), 1인 가구 선택의향(손현승, 2017) 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인 가구 선택이유와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에 관한 설문문항은 2017 한국인 1인 가구 보고서(KB연구보고서, 2017)에서 자기개발, 주거생활비, 일상생활 요인을 도출하여 문항을 보완·수정하였고, 청년기의 삶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청년 사회·경제 실태 지표체계(김기현·하형석·신인철, 2016)의 관계와 참여 영역에서 사회 기여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청년 1인가구는 원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김혜영, 2014)라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정의례 요인을 1인 가구 중요요인으로 도출하였다.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3문항,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 25문항, 1인 가구 선택의향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측정변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1인 가구 선택이유 5문항, 문제요인 7문항은

명목적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인을 위해 미래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과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미래 1인 가구 선택의향 항목에 대한 신뢰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표 3〉 참조). 미래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과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은 요인적재치가 0.7 이상, 신뢰도 0.7 이상이며, 1인 가구 선택의향은 요인적재치가 0.9 이상, 신뢰도는 0.9 이상으로 모든 항목에 내적일관성이 확인되었다. 미래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고,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계발’, ‘사회기여’, ‘주거생활비’, ‘가정의례’, ‘일상생활’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자기계발’은 자신을 위한 여가와 취미활동, 힐링, 건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뜻한다. ‘사회 기여’는 봉사활동, 기부활동, 사회적 이익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뜻한다. ‘가정의례’는 가족, 친인척들의 의례 등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생활비’는 주거관리비, 주거비, 주택비 등을 중요하게 생각

〈표 2〉 미래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 탐색적 요인분석

요 인	항 목	요인적재량	Cronbach's $\alpha$
자기 계발	일과 여가활동의 조화	.863	.927
	여가활동 시간	.853	
	취미활동	.848	
	일과 자기계발의 조화	.816	
	나 자신을 위한 힐링의 시간	.789	
	건강관리	.763	
	규칙적인 운동 시간	.728	
사회 기여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	.824	.798
	금전적 기부활동	.795	
	종교 활동	.728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함께 생각하는 가치관	.717	
가정 의례	친인척 결혼식 참여	.889	.847
	친인척의 돌잔치 및 회갑연 참여	.869	
	정기적인 가족모임	.716	
주거 생활비	전기, 수도, 가스요금, 관리비 등 주거관리비	.859	.818
	전세보증금 또는 월임대료	.838	
	주택구입	.744	
일상 생활	트렌디한 주거 인테리어	.904	.836
	유행에 맞는 옷차림	.866	

〈표 3〉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향 탐색적 요인분석

요 인	항 목	요인적재량	Cronbach's $\alpha$
1인 가구 인식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감이 낮을 것이다.	.814	.705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이다.	.751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할 것이다.	.716	
1인 가구 선택의향	나는 1인 가구를 할 의향이 있다	.901	.964
	나는 1인 가구를 할 계획이 있다	.955	
	나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917	
	나는 1인 가구를 할 용의가 있다	.906	
	나는 미래에 1인 가구 계획을 세우고 있다	.904	

하는 정도이며, '일상생활'은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이 중요함을 말한다.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은 1인 가구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이며, 1인 가구 선택의향은 향후 1인 가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 참조).

####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적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남녀대학생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중요요인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t-value를 실시하였으며, 1인 가구 선택이유와 문제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래 1인 가구 선택의향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성별은 남성 90명(38.0%), 여성 147명(62.0%)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은 23~24세 79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21~22세 69명(29.1%), 19~20세 62명(26.2%), 25세 이상 27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133명(56.1%), 대전 104명(43.9%)이며, 학년은 1학년 69명(29.1%), 2학년 37명(15.6%), 3학년 74명(31.2%), 4학년 57명(24.1%)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가족형태로는 핵가족이 176

명(7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인 가구 34명(14.3%), 대가족 19명(8.0%), 기타 8명(3.4%) 순으로 구성되었다.

#### 2.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본 조사 대상자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M=3.21)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여학생(M=2.7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조). 먼저 남학생은 1인 가구에 대해서 '혼자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M=3.54),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함'(M=3.19), '정서적 안정감이 낮을 것'(M=2.90) 순으로 인식이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혼자사는 사람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함'(M=3.11),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M=2.96), '정서적 안정감이 낮을 것'(M=2.18) 순으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1인 가구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t = 4.390$ ). 자세히 살펴보면 '혼자 사는 사람은 정서적 안정감이 낮을 것'( $p < .001$ ,  $t = 5.835$ ),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 $p < .001$ ,  $t = 4.273$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식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237)			
	구분	N(%)	구분	N(%)	
성별	남	90(38.0)	19~20세	62(26.2)	
	여	147(62.0)	21~22세	69(29.1)	
지역	서울	133(56.1)	23~24세	79(33.3)	
	대전	104(43.9)	25세 이상	27(11.4)	
	1학년	69(29.1)	대가족	19(8.0)	
학년	2학년	37(15.6)	가족 형태	핵가족	176(74.3)
	3학년	74(31.2)	1인 가구	34(14.3)	
	4학년	57(24.1)	기타	8(3.4)	

〈표 5〉 남녀대학생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차이

변 수	남학생 M(SD)	여학생 M(SD)	t-value
합계	3.21 (.816)	2.75 (.770)	4.390***
1인 가구 인식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서 적 안정감이 낮을 것이다. (.964)	2.18 (.889)	5.835***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로 움을 많이 느낄 것이다. (.996)	2.96 (1.039)	4.273***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개인주 의적인 성향이 강할 것이다. (1.027)	3.11 (1.054)	.573

\*\*\* $p < .001$

종합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이 낮고, 외로움을 느낄 것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남학생은 1인 가구가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이고, 여학생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할 것이라는 바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녀의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

본 조사에서 남녀대학생이 미래 1인 가구를 선택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과 그 차이를 살펴 보면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남녀 간에는 자기계발( $p < .01$ ,  $t = -3.275$ ), 주거생활비( $p < .01$ ,  $t = -3.302$ ), 가정의례( $p < .001$ ,  $t = 3.710$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계발과 주거생활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남학생은 가정의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남녀대학생(남학생  $M = 4.07$ , 여학생  $M = 4.37$ ) 두 집단 모두 ‘자기계발’로 나타났다. 최효미와 김지현(2018)의 연구에서도 청년들이 생각하는 1인 가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 (91.9%)에 높은 동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인 가구 선택시 청년들

은 자기계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남녀대학생의 미래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 차이

변 수	남학생 M(SD)	여학생 M(SD)	t-value	
1인 가구 중요 요인	자기계발	4.07(.755)	4.37(.540)	-3.275**
	사회기여	3.04(.705)	2.95(.719)	.930
	주거생활비	3.57(.793)	3.90(.653)	-3.302**
	가정의례	3.90(.757)	3.48(.889)	3.710***
일상생활	3.37(.935)	3.26(.944)	.903	

\*\*\* $p < .001$ , \*\* $p < .01$

그 다음 중요요인에서는 남녀대학생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은 ‘가정의례’ ( $M = 3.90$ ), 여학생은 ‘주거생활비’ ( $M = 3.90$ )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은 비록 1인 가구를 선택해서 살고자 하지만 원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가족, 친인척들의 결혼식, 돌잔치, 가족모임과 같은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으로는 남녀대학생 모두 일상생활(남학생  $M = 3.37$ , 여학생  $M = 3.26$ )과 사회기여(남학생  $M = 3.04$ , 여학생  $M = 2.95$ )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에겐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에 직면할 수도 있으므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4. 1인 가구 선택이유와 문제요인

본 조사 대상자인 남녀대학생의 미래에 1인 가구 선택이유와 문제요인 대한 남녀대학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1인 가구 선택이유에서는 남녀대학생의 유의미한 차이( $p < .001$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1인 가구를 선택하고자 하

는 이유에서 남녀대학생 모두 '내 삶이 더 중요해서'(남학생 32.2%, 여학생 61.9%)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학생의 경우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느껴서'(32.7%)라고 답한 반면에 남학생은 '경제적 이유로'(28.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필요성을 못느껴서'가 여학생이 남학생이 비해 많은 응답의 이유는 여성이 결혼으로 인한 희생을 더 많이 감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경제적 이유'를 여학생에 비해서 월등하게 응답이 많은 이유도 결혼 자금이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미래에 1인 가구를 선택 할 때에 문제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에도 남녀대학생의 유의미한 차이( $p < .001$ )가 나타났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남학생은 '가정으로 부터의 소외'(47.8%)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안전 문제'(32.0%)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아 외(2017)의 연구에서 남성 1인 가구 중 고민이 있을 때 조력자로 '친구'(35%) 다음으로 '부모'(28.8%)를 생각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조력자로 '친구'(35.5%) 다음으로 '애인'(28.8%)을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에게 더 의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선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이 향후 1인 가구 선택 시 '가정의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과 1인 가구의 문제요인에 있어서도 '가정으로 부터의 소외'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연관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은 1인 가구를 구성 할 때의 문제요인으로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강지현(2017)의 1인 가구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다른 유형의 가구(원)보다 높은 피해율을 보였으며, 1인 가구의 세부 유형별 피해율에서는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유형별 1인 가구의 분석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취약성, 특히 33세 이하의 여성 1인 가구의 높은 피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1인 가구의 높은 범죄피해 가능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표 7〉 남녀대학생의 미래 1인 가구 선택이유와 문제요인 차이

요 인	성 별		계	X <sup>2</sup>	
	남학생 N(%)	여학생 N(%)			
선택 이유	사회적 분위기	4(4.4)	2(1.4)	6(2.5)	56.189***
	결혼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22(22.4)	48(32.7)	70(29.5)	
	내 삶이 더 중요해서	29(32.2)	91(61.9)	120(50.6)	
	경제적 이유로	26(28.9)	1(0.7)	27(11.4)	
	기타	9(10.0)	5(3.4)	14(5.9)	
문제 요인	경제적 문제	6(6.7)	24(16.3)	39(12.7)	45.103***
	건강 관련 문제	16(17.8)	24(16.3)	40(16.9)	
	가정으로부터 소외	43(47.8)	26(17.7)	69(29.1)	
	사회로부터의 소외	15(16.7)	19(12.9)	34(14.3)	
	시간활용 문제	2(2.2)	1(0.7)	3(1.3)	
	안전 문제	3(3.3)	47(32.0)	50(21.1)	
	기타	5(5.6)	6(4.1)	11(4.6)	
계	90(38.0)	147(62.0)	237(100)		

\*\*\*  $p < .001$

〈표 8〉 1인 가구 선택의향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B	$\beta$	B	$\beta$	
통제변인	성별	-.955	-.394***	-.616	-.255***	-.474	-.196**
	가족형태	-.189	-.057	-.201	-.061	-.188	-.057
	연령	-.013	-.021	-.038	-.060	-.034	-.053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	자기계발			.312	.172*	.221	.122
	사회기여			-.071	-.043	.013	.008
	주거생활비			.215	.133*	.192	.119
	가정의례			-.417	-.308***	-.320	-.236**
	일상생활			.085	.068	.101	.082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510	-.352***	
Adj. R <sup>2</sup>	.151		.256		.361		
F-value	14.565***		10.816***		15.322***		

\*\*\* $p < .001$ , \*\* $p < .01$ , \* $p < .05$

a. 성별: 0=여성 1=남성

b. 가족형태: 0=1인 가구 1=다인가구(가족형태 중 대가족+핵가족)

### 5. 1인 가구 선택의향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

본 조사에서 남녀 대학생의 미래 1인 가구 선택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단계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미래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변인을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한 결과 VIF는 1.007-1.739로 나타나 분산 확대지수(VIF)가 10이하이며,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Durbin-Watson은 1.890-2.069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였다.

1단계에서 통제변인인 성별, 가족형태, 연령을 투입한 결과 성별( $\beta = -.394$ ,  $p < .001$ )에서만 1인 가구 선택의향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15.1%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대학생들이 미래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 변인을 추가한 결과 중요요인의 하위 영역인 가정의례( $\beta = -.308$ ,  $p < .001$ ), 자기계발( $\beta = .172$ ,  $p < .05$ ),

주거생활비( $\beta = .133$ ,  $p < .05$ )와 성별( $\beta = -.255$ ,  $p < .001$ )이 1인 가구 선택의향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25.6%로 1단계 보다 10.5%로 증가하였다. 즉 대학생들은 친인척의 결혼식이나 돌잔치, 회갑, 가족모임 등의 가정의례에 대한 중요도가 낮을수록, 자기계발과 주거생활비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1인 가구를 선택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3단계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변인을 추가한 결과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beta = -.352$ ,  $p < .001$ ), 가정의례( $\beta = -.236$ ,  $p < .01$ ), 성별( $\beta = -.196$ ,  $p < .01$ )이 1인 가구 선택의향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3단계 변인의 설명력은 2단계 보다 10.5% 증가하여 36.1%를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1인 가구는 정서적 안정감이 낮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이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 것이라는 인식이 낮을수록, 가정의례에 대한 중요도가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1인 가구를 선택하려는 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통제변인인 성별뿐만 아니라, 미래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 중 가정의례, 자기계발, 주거생활비와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이 1

인 가구 선택의향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향후 1인 가구 선택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정의례에 대한 중요도가 낮을수록 자기개발과 주거생활비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1인 가구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1인 가구 선택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미래 1인 가구 선택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대학생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은 1인 가구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낮고, 외로움을 느낄 것 이라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과의 큰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이 비해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미래 1인 가구를 선택할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서 남녀대학생 모두 자기개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여학생은 주거생활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비록 1인 가구로 살기를 원하지만 원가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가정의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인 자기개발은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가치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남학생은 가정의례, 여학생은 주거생활비를 다음으로 중요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때 1인 가구에서 중요요인에 있어 남녀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남녀대학생이 미래에 1인 가구를 선택하는 이유와 문제요인에서도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우선 1인 가구를 선택하는 이유에서는 남녀대학생 모두 '내 삶이 더 중요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음으로는 여학생의 경우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느

껴서'라고 응답한 반면에 남학생은 '경제적 이유로'가 다음으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결혼으로 인한 출산, 양육 등의 돌봄과 책임, 그리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부담감을 피하고자 하며, 남학생은 결혼비용,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등으로 1인 가구를 선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미래 1인 가구 문제요인에서 남학생은 '가정으로 부터의 소외'를 가장 문제점으로 응답하였는데, 1인 가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개인이 고립되고 가정과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여학생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한 문제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 가구로 생활하는 것은 다인가구보다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문제인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남녀대학생의 1인 가구 선택의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1단계 통제변인에서는 성별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며, 2단계에서는 성별, 1인 가구 선택 시 중요요인의 하위 영역인 가정의례와 자기개발, 주거생활비가 1인 가구 선택의향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가정의례, 성별이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중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인 가구 선택의향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라는 새로운 거주형태가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가정의례, 주거생활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결국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주의 약화와 개인화로 인하여 가족과의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과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생활비가 1인 가구 선택의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선택이유, 문

제요인, 중요요인 등에서 성별에 따른 집단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대학생들이 미래 1인 가구를 선택하려는 의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1인 가구는 내부 이질성이 매우 커서 남녀 대학생의 차이가 단지 성별에 국한되어 나타났다고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대학생의 상황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 내에서도 좀 더 세밀한 유형을 분류하여 통한 차이점을 살펴보고,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점, 계층이나 주거형태, 가족형태, 지역, 1인 가구 선택이유 등의 관련 변수와의 연관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보완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인 가구의 여러 의제들은 시대적,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원인들이 다양하므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 대학생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1인 가구 중요요인, 문제요인에서 남녀의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 사회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녀의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 당면한 생활문제 인식의 상이함 등을 전제로 그들의 니즈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가정적,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원으로서의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둘째, 청년 1인 가구는 자발적이든 직장, 학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자발적이든 1인 가구로 살아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질 높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제도적·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등

많은 부분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교육에 있어서도 이들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1인 가구 삶에 대한 이해와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1인 가구의 특징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고 세분화된 생활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교육으로는 유형별 특성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내용에서부터 주영애, 백주원과 박현명(2018)의 '1인 가구를 위한 라이프플랜 프로그램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의식주생활, 여가생활, 소비생활 등의 생활기술적인 자립 프로그램까지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여성 1인 가구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는 안전, 가정으로부터의 소외, 경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 단절, 건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과 특성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생활안전 정책 교육과 자신의 주거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방 방법 등에 대한 1인 가구 안전 교육과 건강,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사회제도와 정책 등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 1인 가구는 생애주기상 1인 가구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성과 선택이 열려 있기에 가족변화에 다양한 특성의 수용과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특징(홍승아 외, 2017)을 가지고 있으므로 1인 가구 선택이 자기중심적 개인화를 위한 선택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와 교육적 노력도 요청된다.

## 참고문헌

- 1) 강은나 · 김혜진 · 김영선(2017). 도시지역 1인 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 保健社會研究, 37(2), 184-215.
- 2) 강지현(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가구 유형별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2), 287-320.
- 3)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 김옥연 · 문영기(2009). 1인 가구 주거실태 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 7(2), 37-53.
  - 5) 김시월 · 조향숙(2015). 중 · 고령 1인 가구의 소비 패턴과 삶의 만족도.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89-118.
  - 6) 김중숙(2014).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현황과 고용-복지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7) 김혜영(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2014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3-22.
  - 8) 남소영(2016). 성, 연령별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식생활, 영양 및 건강상태 차이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마크로밀엠브레인(2014).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 관련 조사.
  - 10) 박문수 · 정호근 · 김화년 · 고대영(2015). 1인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2), 987-994.
  - 11) 변미리(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 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 12) 변미리 · 신상연 · 조권중(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3) 백영국(2017). 여가라이프스타일을 이용한 1인 가구 시장세분화.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손현승(2017). 베이비붐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이 주택연금 선택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송완구 · 임지은 · 도해용(2015). 1인 가구의 관광참여행동에 관한 연구: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광연구*, 30(6), 193-216.
  - 16) 우민희 · 이명진 · 최섯별(2015). 청년세대 일인가구의 여가활동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 다인가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6(1), 201-231.
  - 17) 장진희 · 김연재(2016).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불안정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8) 주영애 · 백주원 · 박현명(2018). 1인 가구를 위한 라이프플랜 프로그램의 제안. 2018 가정학분야 춘계통합학술대회 포스터발표논문.
  - 19) 최홍철 · 김소연 · 나종연 · 최현자(2016). 20,30대 1인 가구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9(2), 89-110.
  - 20) 최효미 · 김지현(2018). 청년 1인 가구 현황 및 청년층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자료집*, 2018(5), 17-21.
  - 21) 한국소비자원(2016). 1인 가구 소비생활 실태조사.
  -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 23) 한수연(2012). 1인 가구를 위한 미래주거환경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20,30대 골드싱글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선호도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한혜진(2013).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 및 재정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홍승아 · 성민정 · 최진희 · 김진욱 · 김수진(2017).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6) 통계청(2016). *인구주택 총조사*.
  - 27) 통계청(2012). *인구주택 총조사*.
  - 28) KB 연구보고서(2017).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 투 고 일 : 2018년 09월 01일
    - 심 사 일 : 2018년 09월 27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11월 28일